

4

Chapter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 6:19~34

찬송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찬송 124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오늘 배울



말씀

1.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함을 압니다.
2.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버는 방법과 목적, 사용처가 중요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우상?'
'도구!'



성경학자인 하워드 헨드릭스가 엄청난 부자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헨드릭스는 식사를 마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자랐으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 아니면 ‘도구’라고 가르치셨어요.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였죠!”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돈을 이 땅에 쌓아 두려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줌과 동륵, 그리고 도적이 있기에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돈은 없어지고 새어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오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재물이 우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은 바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또한 전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줌이나 동륵, 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t 6:2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전 5:10~16)

(신 8:12~18)

(행 4:32~3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2장 1~9절까지 읽고 요약하여 기록해 봅시다.
2.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힘씁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 9~10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3. 만일 나와 우리 집이 부자라면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7~19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4. 만일 나와 우리 집이 가난하다면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6~8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5. 모세가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고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추구하기를 기도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재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바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본능은 알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
오! 신이시여...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믿지 않던 신을 찾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사장인가?

미국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인 스텐리 텀은 회사일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쫓겨 바쁘다 보니 주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번창시키고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자금난의 위기를 겪곤 했습니다.

그가 네 번째 도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해 구원받던 일을 생각하고는 곧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텐리 텀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며, 매 수익금의 51%는 사장님 것입니다.’

그 후로 스텐리 텀은 매일 새벽 2시간씩 사장이신 하나님과 회사 일을 상의했고,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던 때엔 오히려 도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둘 중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 돈을 더 사랑하므로 주님 섬기는 일에 등한하지는 않습니까?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